



14일 광주 화개초등학교에서 열린 '일플 장터'에서 어린이들이 재활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화개초교가 학생들의 재활용 교육을 위해 오픈한 '일플 장터'에서는 전교생이 기증한 의류 등 재활용품 3천 500점이 전시·판매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17개 이전기관 임직원 무얼 바라나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1가구2주택 세제지원”

주말셔틀버스 운행 등 수도권 접근성 좋아져야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나주 공동혁신도시로 옮겨오는 17개 이전 기관 임직원들은 KTX 조기완공과 주말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해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혁신도시 인근의 아파트를 매입해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받게 되는 세제상 불이익이나, 상대적으로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자녀교육여건 등 현실적으로 부닥치게 될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혁신도시 건설촉진 워크숍'을 열고, 한국전력공사와 농어촌공사 등 17개 이전 예정기관의 나주이전을 촉진할 수

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양 시·도와 함께 토지공사를 비롯한 3개 사업 시행사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 이전기관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 수도권에서 나주로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우선, 수도권에 가족이나 생활터전을 남겨 두고 오는 임직원들을 위해 호남선 고속철도의 조기완공과 나주~서울간 주말 셔틀버스 운행 등 수도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홀몸으로 부임하는 임직원들을 위해선 이전기관 임직원 전용 기숙사부지를 제공할 것

도 요청했다.

임직원들은 이와 함께, 혁신도시에 거주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1가구2주택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세 부과문제와 자녀교육 여건 악화 문제 등도 해소해 줄 것을 바랐다. 가족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배우자가 직업을 잃게 될 경우 직업알선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들은 또 자체청사 확보가 곤란한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책과 혁신도시 조성비가 인허가방안인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서울시립대 남기범 교수의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전략' 특강, '이전기관 조기정착 지원프로그램 개발' 간담회, '산학연 투자유치·협력방안과 혁신도시 발전 방안' 주제발표 등 그리고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이 진행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사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관련기사 3면)

조원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이날 밤 8시 30분께 “천 내정자가 이번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지 23일 만에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불거진 개인 비리 의혹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

기수를 파괴한 파격적인 인사로 인해 명동성 법무연수원장, 이귀남 법무차관, 문성우 대검찰청장 검찰 고위 간부

직에 있던 천 내정자의 연수원 선배·동기들의 출사퇴를 불러오기도 했다.

1985년 검찰에 입문해 주로 공안부서에서 생활한 천 내정자는 특수통 또는 기획통 검사로 주로 임명돼 왔던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는 이례적인 인사의 주인공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최경호기자 choice@

150mm

광주·전남 호우주의보

15일 광주·전남지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 광주·전남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14일 예보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60~120mm, 기상청은 특히 국지적으로 150mm 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14일 밤 9시를 기해 광주시와 나주시, 목포시, 담양군 등 전남지역 10개 시·군에 호우 주의보를 내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인허가 쉽고... 조성비용 싸고... 광주 가깝고...

기업들 “혁신도시 골프장 군침도네”

‘나주의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내 골프장을 잡아라’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요구로 사업계획에 반영돼 혁신도시 내에 조성되는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놓고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군침을 삼키고 있다.

혁신도시내 골프장은 도심골프장으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조성될 예정이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전기관 임직원들과 광주의 직장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통

4~5년이 걸려 예를 먹는 골프장 부지매입 및 인허가 기간을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로 대폭 줄일 수 있고, 100억원에 육박하는 부지 조성비에 대한 부담도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낮아 사업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대상지가 구릉지여서 코스 조성비용이 저렴하고 골프장 내 골프빌리지 300채가 사업계획에 반영돼 수익성이 확보됐다는 측면에서 대기업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6월초 수도권의 한 컨트리클럽 사장이 예정지를 답사했고, 최근엔 모건설회사 관계자가 현지를 방

문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공동 혁신도시내에서 골프장 후보지로 떠오르는 곳은 5개소로, 조만간 골프장 개발을 위한 부지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나주=최승철기자 srchoi@



“지방선거 현역 프리미엄 없다”

김동철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능력·도덕성에 비중”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현역 기득권을 최소화하는 대신 능력과 도덕성에 큰 비중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철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14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현역 프리미엄이 작용하지 않도록 공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4면)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당 기여도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유능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의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

부인사의 공심위 참여는 전원 또는 과반, 1/3 이상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 ‘물갈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역이 부당하게 우대받는 공천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